

한 눈으로 보는 경제			3월
코스피지수	2118.88	↓	-0.13
코스닥지수	646.85	↑	+4.37
환율 (원 · 달러)	1195.00	↑	+3.20

비즈 패트론 | 금융그룹 수장들의 엇갈린 희비

신한금융 웃고, 우리·하나금융 울고

〈조용병 회장〉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

조 회장, 채용비리 1심서 집행유예
도덕성 상처 입었지만 사실상 연임

손 회장, DLF 파문에 연임 적신호
함 부회장도 하나회장 도전에 제동

회장을 연임하거나 차기 회장직을 노리는 금융그룹 최고경영진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먼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2015년 신한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월 2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실상 연임을 확정했다. 실형선고로 법정구속되면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왼쪽부터). 연초 채용비리 공판, DLF 판매 관련 제재심 등으로 차기 회장을 노리는 금융그룹 경영진들의 거취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제공 1 신한금융 2 우리금융 3 하나금융

정상적인 회장 업무 수행이 어려웠지만 집행유예를 받아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은 그동안 그룹 경영의 발목을 잡았던 지배구조 불확실성의 우려를 씻어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어도 채

용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만큼 도덕적으로 적지않은 상처를 입었다.

반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대규모 손실로 금융가에 큰 파문을 일으킨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나 확정배 배상이 걸렸다. 문책경고는 최대 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최근 차기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받은 손태승 회장은 회장 연임에 적신호가 켜졌다. 3월 주주총회 이전에 금융위원회가 징계를 최종 통보하면 연임에 차질이 생긴다. 그래서 금감원 제재심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징계 집행이

미루어지기 때문에 3월 주주총회에서 회장 연임 결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기업 수장이 정책당국과 법적분쟁을 벌이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손 회장은 7일 우리금융 정기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손 회장이 연임을 포기하면 우리금융은 차기 회장 선임과 경영진 공백 등으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뒤를 이을 유력한 주자로 꼽히는 함영주 부회장도 차기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렸다.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번 중징계까지 내려져 앞진 데 뒤틀린 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엔지켄, NASH 권위자 찰튼 교수 영입



엔지켄생명과학(대표 손기영)은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 시카고 의대 마이클 찰튼(사진) 교수를 신약개발과 학기술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 신약물질 EC-18의 NASH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간 질환 관련 적응증의 파이프라인 확장을 위한 영입이다. 마이클 찰튼 교수는 현재 시카고 의과대학 간질환센터 교수 겸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NASH와 간질환 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받아 '미국 최상의 의사 리스트'와 '미국의 최고 의사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정정욱 기자

KEB하나, 명칭 '하나은행'으로 변경

KEB하나은행의 공식 명칭이 3일 하나은행으로 바뀌었다. 2015년 하나·외환은행 합병 이후 4년 5개월 간 사용했던 통합은행 명칭에서 외환은행 영문명인 KEB를 뺀 것이다. 고객들이 발음하기 어렵고 영문 이니셜을 사용하는 타 은행과 혼동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사명 일원화를 통해 직원 소속감을 강화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브랜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정정욱 기자

은행도 '코로나와의 전쟁'

영업점 방역 작업...연수·세미나 연기
금리 감면 등 중소기업 대상 금융 지원

대표적인 대면서비스 업종인 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분주하다.

먼저 점포별로 방역과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점포에 고객용 손소독제, 마스크, 비접촉식 체온계 등을 비치하고 감염 예방수칙 등을 안내했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조치다. NH농협은행은 3월

14일까지 전국 지점 점포에 방역 작업을 한다. 신한은행은 본점과 영업점을 소독한 데 이어 중국인 고객이 많이 찾는 일부 점포에 전문업체를 고용해 방역을 실시했다.

공식 행사 및 회의 일정도 조정 중이다. 신한은행은 2월 초 본점에서 진행하려던 글로벌 경영전략회의를 화상회의로 바꾸었다. KB국민은행은 고객 대상 세미나와 마케팅 행사, 직원 연수 등을 연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영향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 위한 금융 지원도 시행 중이다. KB국민·신한·하나·



NH농협은행의 점포 방역 작업 모습.

사진제공 1 NH농협은행

우리·NH농협은행 등은 여행, 숙박, 공연, 음식점 등의 중소기업 중 자금 운용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업체당

5억 원 이내에서 신규 대출을 해주고 금리를 감면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 상환은 만기를 연장해준다. 정정욱 기자

'와병' 이진희 회장, 작년 삼성전자 배당금 3538억

홍라희 766억...이재용 부회장 595억

이진희 삼성전자 회장이 2019년분 삼성전자 배당금으로 3538억 원을 받는다. 한국CXO연구소가 2010년부터 10년 간

이진희 회장 일가의 삼성전자 배당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회장이 2010년부터 삼성전자에서 받은 배당금은 1조4000억 원을 넘는다.

지난해 삼성전자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은



이진희 회장

배당금 1100억 원, 삼성물산 108억 원을 받

아 이진희 회장은 삼성그룹 배당금만 4700억 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삼성 총수 일가의 삼성전자 배당금은 전년과 비슷한 4900여억 원으로 이진희 회장 외에 부인 홍라희 전 리움 관장이 766억 원, 이재용 부회장이 595억 원이다.

정정욱 기자 sadzoo@donga.com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교육·퍼즐

에듀윌

공기업·대기업 면접 대비법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쿠키.kr WWW.매직스도쿠.kr

진화하는 취업 트렌드에 대한 대응 전략은?

공기업과 대기업 등의 채용 트렌드가 진화하고 있다. 기업들은 공개채용을 줄이는 한편 상시 채용이나 맞춤형 인재들을 선호하고 있으며, 채용 제도 역시 인공지능(AI)나 블라인드 채용 등이 확대되고 있다.

공개 채용의 경우에도 필기 전형이나 토론 및 면접 전형에도 거시적인 사회적 이슈나 일반적인 상식, 현안 등에 대해 묻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채용의 첫 시작인 자기소개서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시행된 공기업 일반상식 시험에서 경제와 역사, 일반사회의 출제 비중은 50%를 넘는 수준이다. 특히 경제 문제가 26%를 넘어서며 해당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양상은 공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금융권과 언론사, 대기업 필기 전형에서 지원자의 일반상식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묻는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면접에서도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이 필요하다.

이에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은 '2020 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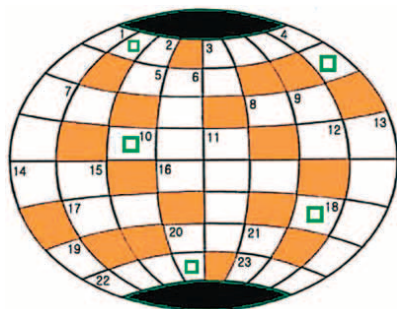


대기업 등 필기전형과 면접, 토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반상식부터 기초상식, 응용상식까지 모두 담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에듀윌에서는 공기업 취업 기출을 분석한 '2020 에듀윌 공기업 기출 일반상식' 교재도 출간했다. 해당 교재는 최근 5년의 공기업, 1년의 금융권 채용 시험에서 출제된 모든 상식 기출 복원 자료를 분석해 반영한 수험서다. 자세한 사항은 에듀윌 도서 및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확인 가능하다.

듀윌 다 통하는 일반상식 통합기 본서' 교재를 출간해 구직자들이 상식 분야를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교재는 공기업이나

■ 낱말문제



■ 가로 열쇠

01.여러 사람이 두루 건드리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 '○네○' 03.머리와 꼬리를 자름. "거○절○" 05.생선을 파는 시장. 07.머리털을 깎아 다듬음. 08.자루가 달린, 국을 뜨는 기구. 10.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천도교의 기본 사상. 12.죽은 사람의 뉘. 14.물고기 잡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16.보급품의 조달·정비·

저장·분배 등을 맡은 부대. 17.코의 밑과 윗입술 사이에 오목하게 굴어진 곳. 18.물체 곁에 발라 썩지 않게 하거나 아름답게 하는 재료. 20.흔히 웃거나 말할 때에 불에 오목하게 우물져 들어가는 자국. 22.전에는 그르다고 생각했던 일이 지금은 옳다고 생각됨. "○비금○" 23.화재 때 쓸 수 있게 마련한 물.

■ 세로 열쇠

01.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낱말. "○음○의○" 02.마른 명태. 03.그 방면의 기능에 특히 뛰어난 사람. 대가(大家). 04.길을 잃고 헤매는 아이. 06.시골에서 나서 자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09.나무를 깎아 다듬는 연장의 하나. 11.세상을 만들. "천○장○" 13.현구두나 신을 끄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기○장○" 15.어떤 내용

이나 사실을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함. 19.마주하고 술을 마심. 20.깨끗한 마음으로 불법이나 재물을 아낌없이 사람에게 베풀. 21.출입이나 교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허가함.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를 이어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국가 이름이 됩니다.

